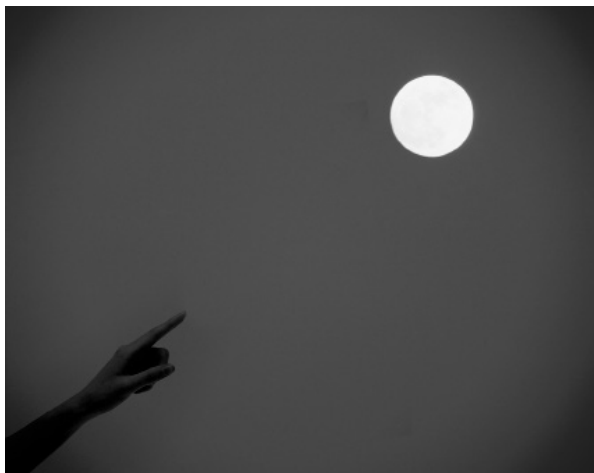


다른 말로 하자면(2부)

| 존 트로이 | 김기형 옮김 |

유한을 유한으로 볼 때 늘 그 안에 깃들어있던 무한, 경계없는 자각이 드러남을 이야기합니다(편집자 주).





어떠한 모습도 가리개일 뿐이다

유한성(mortality)이라는 베일은 시간과 공간, 말, 개념, 믿음, 상상, 관계, 경험적인 지식이라는 실가닥으로 짜여진다. 이 환영은 주의를 끌어당기는 정교한 정신적 커튼이다. 그 가림막을 구성하는 실가닥들이 모여,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 이미지,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다양한 의식 상태들을 구성한다. 이 베일은 자각을 덮어버린다. 바쁘고 여유가 없는 마음이다. 그 마음은 끝없이 지식을 추구함으로써 본래의 자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무대를 장악해버린다.

이러한 정신적 미로에서 가상의 '나라는 생각'과 자기 정체성에 대한 관념이 생겨난다. 그러나 이들은 믿음, 착각, 환영, 사후비판자에 불과하다. '나라는 생각'이 삶의 결과를 바꿀 수 없음은 운동경기 해설자가 경기 결과를 바꿀 수 없음과 같다.



모른다는 것을 알기

지혜는 학파, 종교, 믿음 체계, 책, 생활양식, 신학, 우주론 등에 있지 않다.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다.

지혜는 투명한 현존이다. 배워지는 것이 아니다. 지식은 외우려들면 한도 끝도 없고 그렇게 외운 지식이 지혜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경험적 지식만으로는 걸어 다니는 도서관에 불과하다. 경험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으로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는 없다. 마음으로는 우리가 진정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미스터리는 미스터리로 남는다. 마음으로는 파악할 길 없는 이 미스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받아들이라.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진실로 알지는 못한다. 정답도 없다. 알고자 하는 욕구를 버리라. 신비를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통찰이요, 지혜이다.



믿음Belief은 거짓lie이다

믿음은 믿을 필요가 없다. 믿음은 고집스럽고 옹졸하며 분열을 일으킨다. 믿음 자체가 믿는 자를 만들어내며 그 믿는 자 또한 하나의 믿음이다. 믿음은 충동을 일으킨다. 믿음은 바위에 새긴 글과 같이 베일을 더 두껍게 만든다. 사후세계나 환생 같은 보편적인 믿음을 생각해 보라. 도대체 누가, 무엇이 환생을 하는가? 영화가 상영될 때마다 모든 등장인물이 되살아나는가?

믿음은 인간이라는 장막의 영역에서 접착제와 같다. 시간, 공간, 거리, 기억이라는 믿음의 가닥들이 삶이라는 베일을 구성한다. 환생, 사후세계, 신화, 다양한 의식 상태, 종교, 신학, 신념 등도 마찬가지이다. 사람 수만큼이나 많은 믿음체계와 종교가 존재한다. 나는 누구더라는 것,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믿음이다. 믿음을 믿지 말라.



유한성mortality이라는 신화myth

유한성이라는 베일은 영원한 존재 속에 육신이라는 꿈을 만들어내고, 경계없는 자각을 하나하나의 개인으로 포장한다. 침묵Stillness은 영원하지만, 침묵 안에서 일어나는 유한한 환상은 그러하지 않다. 인간의 모든 의식 상태는 영원한 침묵 속에 나타났다 사라진다.

구름이나 폭풍, 날씨, 무지개가 결코 하늘 자체를 건드리지 못하듯 그 어떤 변화도 우리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는 못한다. 우리자신은 자각이라는 하늘이며, 모든 것을 조건 없이 두려움 없이 받아들인다. 우리는 '받아들임' 그 자체로서, 인간의 경험이나 여러 의식 상태를 주재主宰한다. 모든 해프닝은 유한성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이다.

우리는 육체적 존재라는 최면에서 깨어날 수 있다. 유한을 믿음belief으로 보면 유한이라는 베일은 아주 얇아지거나 없어진다. 비물리적 현존이라는 진리가 자명해진다. 이 침묵은 말로 표현될 수 없고 거부할 수도 없다. 사랑Love이라는 고요한 힘은 바로 '지금Now'으로서 모든 것을 흔들림 없고 경계 없는 참나Self로 품어 안아, 환영으로 현상화된 만물 속으로 침투한다. 모든 것은 마땅히 존재해야 할 바 그대로이다. 그것은 상상된 것이 아니다.



기적은 행위자와 무관하다

동시에 발생하는 일에는 행위자나 어떤 술수가 필요 없다. 수많은 마술사, 요가수행자, 성인, 주술사, 메시아, 아바타, 무당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으로 오해를 받거나, 그럴 것으로 기대를 받는다. 그러나 누군가가 기적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목을 받거나 감탄을 불러일으키거나 여흥을 위함이다. 기적은 행위자 없이 저절로 일어난다.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연관 있어 보이는 사태들이 자연스럽게 동시 발생synchronicity하여 마치 일상에서 기적이 벌어진 것처럼 보이게 된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동시성synchronicity이 우리를 지배할수록 미스터리가 신비로워진다. 그것이 ‘신뢰Faith’이다. 행위의 주체는 필요하지 않다. 동시성은 이러한 신뢰를 단단히 한다. 그 어떤 것도 행하는 사람은 없다. 신뢰와 순종만이 행위의 주체가 빠진 동시성을 목격하게 한다. 동시성이란 관찰자의 눈에만 존재할 뿐, 보여지는 그 자체는 아니다. 정직한 이라면 이 점을 지적하며 결코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리라.



수직적 패러다임The Vertical Paradigm이 사실actual이다

우리는 진정 육체 속에 갇힌 채 꿈쩍 없이 시간을 따라 수평으로 이동하는 '나라는 생각'인가?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믿음은 '나라는 생각'이 기억의 흔적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로서 갖고 다니는 주문呪文으로, 사람을 홀리는 마력이 있다. 이것은 인간은 태어나서 생을 누리다가 죽는다는 생물학적 환영을 영속화시킨다. 이것은 진실을 장막으로 둘러싸는 신기루이다. 실상을 보면 어제와 내일은 결코 존재한 적이 없으며 전과 후라는 비실재적인 수평적 사고방식을 구성한다.

여기에서 현자의 지팡이가 의미하는 바를 발견할 수 있다. 수직적인 지팡이는 영원한 '지혜', 즉 과거도 미래도 없는 수직적 패러다임을 상징한다. 침묵이 되어, 움직임이라는 환영이 침묵 속에서 일어나는 의식의 활동임을 인식하라. 그 환영은 단지 무형의 통찰을 통해 온전해지는 무해한 꿈이다. 지혜의 지팡이를 과거나 미래로 향하지 말고 수직으로 유지하라. 수직적 지팡이는 현 순간, 즉 '미스터리'가 어떠한 스토리를 띠지 않은 채 신비로 남아있는 현 순간에 대한 끝없는 신뢰를 가리킨다.



수용은 가장 강력한 기도이다

‘나라는 생각’이 지배력을 잃으면, 있는 그대로 조건 없이 수용하게 된다. 수용이란 행위자의 부재이며, 생물학적 육체마저 태어나고 죽게 한다. 이것을 두고 사랑이라 부르기도 하고, 신이라 부르기도 하며, 참나Self라 하기도 한다. 이 완전한 비존재는 ‘나’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암시된다. 수용은 자각이라는 온전한 토대의 본성이다. 수용은 이 결작이 화폭 위에서 아무런 걸림돌 없이 우아하게 펼쳐지게 한다. 수용은 신뢰Faith이다.

수용은 반발을 무력화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게 한다. 수용은, 무의식은 물론 다른 여러 의식 상태가 아무 거리낌 없이 나타났다 사라지게 한다. 수용은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신뢰의 호소이다. 수용은 결과물이 필요치 않다. 수용 자체가 이미 ‘미스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결과물이다.



영원한 꿈의 영사막

꿈 없는 깊은 잠 속에서나 마취되었을 때, 태어나기 전이나 삼매에 들었을 때, 의식불명 상태에 있을 때는 꿈의 영사막에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다. 영사막은 완벽하게 깨끗이 비어있다. 이 영사막은 명백하게 수용적이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고 고요하며 형체가 없기에 알아채지 못한다. 꿈은 백일몽이나 우주적 의식이 그러하듯 영사막에 나타난다. 꿈은 자신의 토대를 알지 못한다. 영사막은 꿈 속 등장인물들의 기억이나 이성엔 전혀 포착되지 않지만, 항상 자각을 비추고 제시한다.


우둔한 마음은 그 영원한 주인을 알지 못한다. 각각의 의식 상태들은 영사막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영사막은 다르다. 영사막은 어떤 경우에도 존재한다. 영사막은 영원하지만 꿈 자체는 그렇지 않다.



지금 여기에 있으라

이 ‘지금Now’만을 곰곰이 생각해보라. 그것은 더 나눌 수 있는 것인가? 부서질 수 있는 것인가? 당신은 과연 ‘지금’에서 분리될 수 있는가, 한시라도? 이것의 한계는 무엇일까? 어떤 것이 ‘지금’에 머물기나 하는가? 이것은 연속체인가, 아니면 분리되어 있는가? ‘지금’이 시간을 통과해 움직이는 것인가 아니면, 시간이 움직임 없는 ‘지금’ 속을 움직여가고 있는가? ‘지금’이 ‘지금’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덜 위대하다고 깎아내릴 수 있을까?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이 ‘지금’이란 무엇인가? 순수한 자각인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정말 그러하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지금’과 동일하다. 우리는 결코 ‘지금’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있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다. 침묵으로서의 ‘지금’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만,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침묵은 시작도 끝도 없다. ‘지금’은 생각도 아니고 의식 상태도 아니다. ‘지금’은 고요한 자각이다. 어떤 형이상학적 용어도 필요하지 않다. ‘지

금'은 이름 붙일 수 없으며 또 다른 대상이 아니라 늘 동일하게 공유된다. '지금'은 자신을 주장할 수 없다. (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In Other Words》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존 트로이** John Troy |

역자 | **김기형** | 〈지금여기〉 번역위원. 경북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시립대학원(Graduate Center) 철학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